

여름휴가 '가면'서 '감염'과 놀자!

여름 휴가철입니다. 다들 무더운 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혹은 집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 딱딱한 이야기 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 기간에 즐길 수 있는 감염 관련 영화와 소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 < 12 몽키즈 > - 감독 : 테리 길리엄 | 출연 : 브루스 윌리스, 브래드 피트



감염과 관련된 영화는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소개된 작품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는 '12 몽키즈'입니다. 1995년 작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이긴 하지만, 명작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인해 대다수의 인류가 죽고 지하세계에서 극소수의 인류가 살아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제임스 콜(브루스 윌리스)이 세계를 멸망시킨 바이러스의 원형을 구하기 위해서 1996년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감염병, 디스토피아, 타임워프, 반전 등 많은 흥미요소들이 잘 조화된 영화입니다. 포스터에도 나오듯이 브래드 피트도 주요 인물로 출연하여 젊은 시절의 그를 보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황금 같은 휴가기간을 투자하시기에 전혀 아깝지 않으리라 자신합니다.

📖 < 나는 전설이다 > - 리처드 매드슨 지음 | 조영학 옮김

감염과 관련 소설 추천작은 고전인 '나는 전설이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윌 스미스의 영화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195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미래인 197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세균에 의해서 주인공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낮에는 살 수 없는 '흡혈귀'(영화에서는 좀비로 나왔지만)가 된 세상에서 주인공이 생존해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영화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셔도 좋고, 보시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발표 당시부터 기존 흡혈귀 소설의 공식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들었을 만큼 일반적인 흡혈귀 소설과는 다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고, 이 평가는 약 60년이 흐른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의 전개도 매우 흥미로워 책장이 훌훌 넘어갈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는 제목인 '나는 전설이다.'가 영화와는 아주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추천 드린 작품들이 전부 디스토피아적 미래세계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이런 조금은 으스스한 작품들이 무더위를 식히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 추천 드린 영화와 소설로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노준수)